

# 음악·스포츠 등 목적 입시보다 넓게 생각하라

## ■ 대입 가이드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음악이 전공이 아닌데 음악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 주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대학 가려면 음악 한 가지, 스포츠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신다.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특별활동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부한 감성을 만들어주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기에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감지 해야 한다. 요즈음에는 미술, 디자인, 음악 등 많은 분야에서 비전공자들이 감각적이고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공과 관계없는 경쟁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음악 전공자들의 경쟁자들은 바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음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미래 연주활동의 경쟁자가 되었다.



미국의 대학은 음악, 미술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나 업적 또는 수상을 한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유명 의대 입학심사에서 지원자의 경력 중심가운데 음악교육의 배경을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음악교육에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삶을 풍요롭고 심신을 건강히 하는데 즐거움 찾아야 뛰어난 기량으로 수상 못해도 과정 통해 값진 교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민 왔다고 말하는 부모님이 아직까지 상당수가 많은 한인 이민사회. 하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중·고교 시절에 특별활동은 별로 안 하고 공부만 하자고 SAT만 잘 치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무리 없이 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대학은 운동이나 공연예술, 미술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나 업적 또는 수상을 한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예로 한 유명한 의대 입학심사에서는 지원자의 경력 중심가운데 음악교육의 배경을 높이 평가한다.

그 이유는 음악적 사고능력이 섭세하고 세부적인 지식과 함께 감지능력을 갖출 수 있고 의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나 클라리넷 등 한 가지씩의 악기는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초등학교 이전부터 고교 때까지 꾸준히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음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다. 밴드부 활동을 비롯하여 합창부, 오케스트라 등 음악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긴장과 이완이 필요하듯 음악 또한 크고 작은 연주나 콩쿠르, 페스티벌 등의 공연활동을 통해 음

악적인 의욕을 돋워줄 수 있다. 자녀들이 간혹 콩쿠르대회에 출전할 경우, 수상을 하지 못할지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도록 알게 해야 한다.

큰 대회에 출전하는 연주자들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고 배우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라.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음악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컬럼비아 대학과 프린斯顿 대학의 학생 오케스트라 연주회 프로그램에 말리의 교향곡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상위권 음악대학에서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이 대작을 음악대학도 아닌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리가 연주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중·고등학생들의 콩쿠르 우수 입상자들의 대부분은 음악대학 진학보다 일반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 명문대학 입학사정에서 운동이나 음악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본인의 관심사가 음악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한다.

또 한 예를 들면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바흐 소사이어티’를 결성해 대학생들과 석사공부를 하는 동안 수십 차례의 연주회를 직접 만들어 공연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의 4학년생으로 이루어

진 유명한 아카펠라 양상블팀인 ‘위펜풀스(Whippenpools)’는 14명의 멤버가 선발되면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전 세계 연주를 다닌다. 몇 년 전 필자가 섭기는 성당 가족 중 일원이 이 멤버로 있어 우리 본당에서 출석한 퍼포먼스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직접 이곳저곳 연락을 취해 연주회를 만들고, 제안서를 만들어 여행경비도 충당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 전국을 돌면서 멤버가 사는 고향에 갔을 땐 그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만약 연주여행 도중 돈이 부족할 땐 한 방에 모두 모여서 자기도 하는 등 열정을 갖고 활동한다고 했다. 곧 출연을 하고 취업준비를 해야 할 비음악전공자 출연반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활동은 그들의 인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이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과 희생을 즐기면서 하고 있었다.

단순히 음악 연주만이 아닌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대단한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명문대 합격을 위하여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음악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고 있고, 전통적 음악

교육과정에는 얹매이지 않기에 곡 선택이나 연주할 때 훨씬 자신감이 있고 과감하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정식으로 음악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감동을 주는 TV 경연대회 스타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이태석 신부는 혼자 악기를 배워 아프리카 아이들과 밴드를 만들었고 영상을 통해 이를 접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음대를 나오지 않았다고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로 구분되지만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에게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하고 그 가능성에 흥분하게 된다. 이들은 순진무구한 자신감으로 겁내지 않고 연주를 하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한다. 그리고 음악이 다른 분야와 융합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 반면, 전통적인 음악 교육 시스템에 있는 많은 연주자들은 그 후된 훈련과정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기 쉬울 뿐더러, 셋업된 연주기회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주기회가 적다고 한다.

그리고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도 연주활동 기반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았을 때 자포자기하기도 한다. 이제 단순히 예술대학을 졸업했는지를 놓고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할 수만은 없게 됐다. 지금의 시대는 미술,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 비전공자들이 감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오히려 비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한다.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각각의 화학기호에 음을 매치시키며 창의적인 곡을 만든다. 문학이 전공인 학생들의 경우 시 한 수에 음악을 조화시켜 연주하기도 한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철학적인 내용의 에세이를 요즘 유행하는 랩으로 짜 맞추어 노래하기도 한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이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발동하여 창의적인 발상으로 근본을 파괴하지 않고 시도하려는 주인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때다.

사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많은 연습량 때문에 교양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벽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음악가들에게도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시점이다.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지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함께 해 나갈 때 음악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악 전문가들은 말한다.



진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http://www.TheAdmissionMasters.com)



# ADMISSION MASTERS™

Educational Consulting Group

## 대/입/컨/설/팅 전문

### 2015 여름방학!!

어드미션 마스터즈는 가장 많은 합격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가장 많은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시 전문가 그룹으로 학생과 학교, 그리고 입시전략을 위한 제 3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어드미션 마스터즈 Socal Team



####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

학생 개인에 맞는

#### 맞춤형 리더쉽 프로그램

학생의 성향과 전공에 맞는

인턴쉽, 서치, 행사활동,

경시대회, 활동 등

다양한 스펙개발,

명문대 입학에 필요한

차별화된 활동경력 개발

#### 대입/편입/대학원 컨설팅

학부모들은

#### 교육컨설팅 업계 1위

지향하며 올해도 명문대

최고의 합격율을 자랑합니다.

졸업생 모두가 주전하고

싶어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GPA 마스터즈™

커인코이 학습플랫폼에 맞춘

특허받은 자기 주도학습

훈련프로그램으로 학교공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스터디 스kil학습관리,

시간관리 훈련,

GPA성적관리

#### SAT/ACT/AP 족집게 과외

SAT전선을 수없이 만든

SAT스터디방의 직강

2200~2400점 목표반,

New ACT/SAT 준비반,

새학기 AP 준비반

[www.TheAdmissionMasters.com](http://www.TheAdmissionMasters.com)  
보딩 / 대학 / 편입 / 대학원

2015 여름방학!!

어드미션 마스터즈는 가장 많은 합격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가장 많은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시 전문가 그룹으로

학생과 학교, 그리고 입시전략을 위한 제 3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

맞춤형 리더쉽 프로그램

인턴쉽, 서치, 행사활동,

경시대회, 활동 등

다양한 스펙개발,

명문대 입학에 필요한

차별화된 활동경력 개발

커인코이 학습플랫폼에 맞춘

특허받은 자기 주도학습

훈련프로그램으로 학교공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스터디 스kil학습관리,

시간관리 훈련,

GPA성적관리

SAT에서 만점을 받은 강사,

SAT전선을 수없이 만든

SAT스터디방의 직강

2200~2400점 목표반,

New ACT/SAT 준비반,

새학기 AP 준비반

2015 여름방학!!

어드미션 마스터즈는 가장 많은 합격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가장 많은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시 전문가 그룹으로

학생과 학교, 그리고 입시전략을 위한 제 3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

맞춤형 리더쉽 프로그램

인턴쉽, 서치, 행사활동,

경시대회, 활동 등

다양한 스펙개발,

명문대 입학에 필요한

차별화된 활동경력 개발

커인코이 학습플랫폼에 맞춘

특허받은 자기 주도학습

훈련프로그램으로 학교공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스터디 스kil학습관리,

시간관리 훈련,

GPA성적관리

SAT에서 만점을 받은 강사,